



불서광장

스님이 수도원에서 수행 했다??

향적 스님의 가톨릭 수도원 체험기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



틱낫한의 행복/틱낫한 지음/진현종 옮김/경덕출판사 /1만2000원

"나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덜 받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전환시킬 수 없다면 행복해지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틱낫한은 우리 마음 속의 화와 두려움 고통 등을 없애는 것이 행복으로 이르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가 펴낸 여러 책들에서 행복의 길을 일러주는 대목들을 발췌해 묶었다. 프럼 빌리지의 수행공동체 생활을 담은 사진과 다양한 이미지들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은게이 밍규르 린포체 지음/류시화 김소향 옮김/문학의 숲/1만2800원

은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티베트의 신세대를 대표하는 수행자다. 네팔 누브리 계곡에서 태어나 티베트 밖에서 교육받은 그는 캄규르 린포체(1898~1975)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러한 밍규르 린포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세상을 인식하는 지혜를 전한다. 그는 마음속의 두려움과 장애를 없애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기도하듯 우리에게 알려준다.



유교경/김지수 옮김/하늘북/1만원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담은 <유교경>의 갖춰진 이름은 '불설열반장설교경(佛垂涅槃略說教誡經)'이다. 구마라집 한역본을 김지수 교수(전남대 법대)가 우리글로 쉽게 풀었다. 앞시대의 선지식들이 밝혀 놓은 원문과 절요, 주해 풀이 등 여러 과정을 거쳐 경문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유교경은 "앞부분의 부처님 가르침 원본만 따로 읽고 마음에 새겨 공부한다면 뒷부분은 펼쳐보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실정치와 미래 한국의 비전/윤소암 지음/술과과학/1만5000원

'바보 노무현의 꿈과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바로 오늘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이 책의 곳곳에 꽂혀 있다. 투쟁과 대립의 정치상과 사회구조 시대착오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종교집단,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의 뒷모습, 이명박 현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정치적 이해와 국가통솔의 체널들, 황우석·지율스님·윤암·김성숙·버락오바마 등을 통해 보는 '오늘'이 진지하다.

저자가 최근 7년간의 한국사회를 바라보며 쓴 다섯 번째 평론집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다"고 고백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좌우이념 충돌과 흑백논리, 그리고 약육강식의 권력 투쟁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히고 있다.



울지말아요 티베트/정미자 지음 박선미 그림/책먹는 아이/1만원

티베트의 어린이들은 왜 그 험한 히말라야를 넘는가?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그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아이들은 티베트의 아이들이 굴주립과 공포를 안고 추위와 싸우며 히말라야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13세 보년이가 아빠와 함께 티베트를 여행하며 보게 되는 그곳 아이들과 스님 그리고 아저씨들. 보년이는 너무나 새로운 세상에 상상한 적도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 아이들에게는 달라이라마가 있다는 것이 열쇠였다.



"베네딕트회의 목적 방법이 목조선과 매우 유사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산 선문사 갓바위 주지



프랑스 베에르-끼 수도원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 향적 스님.

향적 스님이 프랑스 수도원에서 고행한 내용을 담은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이 화제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프랑스 베에르-끼 수도원 체험을 회고하며 쓴 '해인'에서 베에르-끼-비까지'란 글에서 향적 스님은 가톨릭과 불교와의 수행방법을 비교하고 있다.

책에서 향적 스님은 "은둔 수행자로서 가톨릭의 성인이 된 베네딕트가 강조한 것은 금욕생활, 기도, 묵상, 성경공부 그리고 육체노동이었다"며 "이는 선가에서 교화와 선학을 겸수할 것과 율력을 통한 청빈함과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가톨릭에서 명상할 때 성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방법과 침묵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은 염불선과 목조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베네딕트가 63세의 나이로 몬테카시노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선 채로 선종(善終)했다는 것. 이에 대해 스님은 "선종의 조사들이 앉거나 선 채로 열반(坐脫立亡)에 드는 경우가 많듯이, 종교를 떠나 수행을 열심히 한 분은 생사(生死)에 자재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적 스님은 프랑스 수도원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든 종교는 대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대중을 위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요약했다.

발문을 쓴 정후 스님은 "향적 스님은 불교의 지혜와 가톨릭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관을 통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아가 하찮은 미물까지도 그 안에 하느님의 영혼이 살아 있고, 부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풀이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ooks including '일기일회', '답답하면 물아라',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간디의 진정한 선물은 '무외시'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위대한 혼이자 성인으로 추앙되고 전 세계인들에게 휴머니즘의 극치로 존경 받는 간디의 자서전이다. 간디는 인도인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용기를 주었다. 다름 아닌 '무외시'다. 공포심의 제거는 바로 용기와 신념을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고 진리를 실천하는 공행의 원천이다.

침체되고 비겁하고 의기소침하던 인도인들에게 당당함과 신념과 자존심을 불어 넣은 간디의 생애를 간디 스스로 '진리의 실험'으로 응축한다. 처음 자서전은 1927년과 1929년에 두 권으로 출간 됐고 이후 한 권으로 나왔다. 다시 <영 인디아>지에 연재된 영문 원고들이 책으로 묶여졌다. 가문과 출생, 일찍 결혼을 하고 영국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종교에 관심을 갖는 대목이 자서전의 초입이다. 이후 아프리카에서의 생활과 인도로 귀국하여 벌인 비폭력 투쟁의 '역사'가 강렬처럼 흐른다. 역사는 자서전의 많은 분량을 간추리는 대신 많은 역주를 달아 간디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간디 자서전/김선문 옮김/지식을 만드는 지식 /1만2000원

"바른 믿음에 도움 되길.."

광우 스님 '회향' 출판기념법회

서울 성북구 삼선동 언덕에 위치한 정각사에 1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법당과 앞마당이 불자들이 가득 찼다. 부처님오신날 말고는 이런 일이 없는 절인데 7월 22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비구니계의 원로 광우스님(前 전국비구니회장의 가르침을 담은 <회향>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였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광우 스님이 법당에 들어서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법당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인기스타의 등장에 열광하는 '오빠부대' 같았다. 사회를 맡은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세요. BBS 초대석을 진행하는 최정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다시 한 번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회는 그렇게 신명나게 시작됐고 시종일관 즐겁고 진지했다. 광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가 오랜 세월 써 온 '신행불교'의 권위자들이 책으로 묶여 세상에 회향되니 기쁘다"며 "이 책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수필가 맹란자씨가 <회향>의 출간 과정을 설명하고 호진 스님(前 동국대교수)이 책의 의의와 광우 스님이 불교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눈물을 흘리는 불자들이 있었다. 서울교 교수(동국대)는 광우 스님의 인품과 여러 일화들을 소개했다.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은 동참한 불자들에게 <회향>을 법공양 했다. 지난 봄 주지에 취임한 정목 스님은 주변의 취임법회 권유를 물리치고 동국대와 여러 복지시설에 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때문에 "주지 안 하겠다고 10년을 버티던 정목 스님이 이제 주지를 맡았으니, 새로운 정신으로 포교의 길을 넓혀 나갈 것으로 믿으며 나와 여러분들이 축하 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자"는 광우 스님의 한 마디에 참가자들이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법회에는 불교상당개발원 원장 정목 스님과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고문과 이은영 원장, 홍사성 유심아카데미 원장 등이 참석해 <회향>의 출간을 축하했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세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채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